

■ '광주 3·1 만세운동' 89년만에 내일 재연

광목 저고리·태극기 물결 다시 외친 "대한독립만세"

"드디어, 3월10일 광주의 작은 장날 독립 만세의 함성이 터졌다. ~1천명 가량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흔들며 서문통(지금의 광주우체국에서 황금동 가는 길목), 충장로 파출소, 금남로 구 법원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광주경찰서 마당으로 들어서 더욱 맹렬히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수피아여고 90년사)에서 발췌)

1919년 3월10일 광주의 옛도심인 양림동 부동교 장터에서 시작돼 광주를 '독립'의 함성으로 몰아 갔던 '광주 3·10만세운동'이 89년만에 재연된다. '광주3·1만세운동 행사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1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고 내 '광주3·1만세운동기념탑'에서 만세운동 진원지인 부동교를 거쳐 광주공원까지 향하는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학생과 시민 등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89년 전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함성 소리를 잇는다. 행진이 끝나는 광주공원 앞 광주고 광장에서는 사물놀이와 광목 퍼포먼스, 취지 및 다짐 선포식 등이 진행된다.

행사를 준비한 송인동(49·호남신학대 교수) 집행위원장은 "3·10 광주

만세운동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더불어 일제에 항거했던 대표적 운동이고 5·18로 이어지는 광주정신의 큰 뿌리지만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 50곳이 넘는 도시에서 3·1절 재연행사가 이뤄지지만 광주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4.6×7.2m 크기의 대형 태극기와 2천장의 손태극기가 준비되며, 수피아여고 학생 등은 뿌리지만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 50곳이 넘는 도시에서 3·1절 재연행사가 이뤄지지만 광주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행사를 앞두고 28일 리허설에 참가한 김유연(18·수피아여고 2년)양은

"학교 선배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말을 선생님께 들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가하려니 숙연한 느낌이 든다"며 "앞으로는 기념탑을 지날 때, 선배들에 대한 묵념이라도 하고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학교 선배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말을 선생님께 들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가하려니 숙연한 느낌이 든다"며 "앞으로는 기념탑을 지날 때, 선배들에 대한 묵념이라도 하고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의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가 2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유추진회' 사무실에서 당시 상황을 비디오 영상에 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日 최고재판소에 제출할 강제징용 할머니들의 영상 증언

恨맺힌 절규, 일본의 양심 깨울까

3·1절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유추진회' 사무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 나고야에 있는 군용기 제조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근로정신대로 일했던 양금덕(80·광주시 서구) 할머니 등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한을 토로하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제출할 영상증언을 촬영하기 위해 서였다. 소송은 양 할머니를 비롯, 나주와 순천에서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전남출신 8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1. 2심 모두 할머니들이 졌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영상증언은 일본인 자원봉사 변호인들에 의해 최고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방 이후에 흘린 눈물만 받았어도 배 몇 척을 채워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전 일본의 '일'자만 들어도 사지가 떨릴 지경이에요." 양금덕 할머니. "강제노역을 하면서 손가락이 잘리고, 다리도 병신이 됐지만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의 도움도 전혀 못 받았습니니다." 김성주(80·경기도 안양시) 할머니.

김 할머니는 신혼 초기 일본에 끌려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위안부

로 오해를 하고 '몇 놀이나 상대 했다'며 구박을 했던 일, 형편이 어려워 자식들을 사흘간이나 굶겼던 이야기 등 그동안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이날 함께 영상 촬영을 한 이동련(79·광주시 광산구), 김혜옥(78·화순군) 할머니도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가 강제 징용으로 갖은 고초를 겪었다"는 사연을 털어 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유족회 이금주(여·87) 회장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한일협정 때 모두 보상했다"는 일본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절절한 사연이 담긴 테이프를 보고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전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알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등록금 후불제 조기 도입"

교육부 '국가장학기금' 설치키로

교육부는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와 소득에 비례한 대출금 상환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김도연 장관 내정자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득 격차에 따른 등록금 형평성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 등록금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 지원 방안을 마련,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중산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 고소득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기초수급자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학자금대출 금리보전 및 근로장학금이 4년제 대학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은 계속 추진된다.

2007년 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쳤는데 비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 10.2%, 사립 6.6%에 달했고 2008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 6.2~10%, 사립 5.9~8.9%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또 현행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제도를 통합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국가 장학금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건축 자재값 치솟자 닥치는대로 훔친다

광주지역 절도 극성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절강 등 건축자재 가격이 전정부지로 치솟자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치는 절도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28일 공사현장에서 건축용 철근을 훔친 박모(41·북구 운암동)씨를 절도 혐의로 불감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청풍동 공사현장에서 전모(46)씨의 건축용 철근 80개(시가 200만원 상당)를 훔쳐 1t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훔친 자재는 고물상에

3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은 또 이날 건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전기자재를 훔친 일용직 근로자 조모(44·서구 농성동)씨를 절도 혐의로 불감아 조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업자 최모(64)씨가 쌓아 둔 형광등 등 58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다.

한편, 최근 철근 폭귀현상으로 고철 값이 폭등하면서 알루미늄·구리·고철 등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알루미늄 1kg당 500원, 고철 1kg당 250원, 구리 1kg당 2천400원에 고물상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 사물보사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짓값, 돈으로 탕감하라" 1억원 꿀꺽

○~길거리 포고를 통해 코드인 40대 여성을 현혹시켜 '정성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유사종교단체 간부 2명이 경찰에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짓값을 없애려면 돈을 내야한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모 유사종교단체 광주지회 간부 박모(31)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H빌딩 앞 길에서 직장인 임모(여·40)씨에게 접근해 사무실로 유인한 뒤 "짓값이 수백억원인데 돈으로 탕감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1억108만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은 이들이 소속된 미등록종교단체에 대한 인터넷 안티 카페가 개설될 정도로 유사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방침. /최권필기자 cki@

정부중앙청사 화재 모니터 코드 손상 발화

정부중앙청사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사 504호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의 전원 코드가 손상돼 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불이 난 국무조정실 504호(혁신팀) 사무실에서 수거한 각종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504호 책상

광주 제원엔비노기과

www.gjv.com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원통 (062) 233-5119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36

황산

무안 ↔ 항주 직항

광주/전남, 지역행사 판매

문의전화: 02) 226-6070

광주-부산 4인	₩329,000 - 4인 4석	₩799,000 - 4인 4석
광주-부산 2인	₩149,000 - 2인 2석	₩399,000 - 2인 2석
광주-부산 1인	₩79,000 - 1인 1석	₩199,000 - 1인 1석
광주-부산 3인	₩249,000 - 3인 3석	₩649,000 - 3인 3석
광주-부산 4인	₩329,000 - 4인 4석	₩849,000 - 4인 4석
광주-부산 5인	₩399,000 - 5인 5석	₩999,000 - 5인 5석
광주-부산 6인	₩479,000 - 6인 6석	₩1,149,000 - 6인 6석
광주-부산 7인	₩549,000 - 7인 7석	₩1,299,000 - 7인 7석
광주-부산 8인	₩619,000 - 8인 8석	₩1,449,000 - 8인 8석
광주-부산 9인	₩689,000 - 9인 9석	₩1,599,000 - 9인 9석
광주-부산 10인	₩759,000 - 10인 10석	₩1,749,000 - 10인 10석